

2 0 2 2 수 능 국 어

수 능 특 강

FULL-E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운문편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특강 FULL-E **운문편**은.....

### 🏠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문학 작품은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 🏠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이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의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적으로 연계 작품을 학습해야 합니다.

### 🏠 EBS 연계 작품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관련 작품도 수록했습니다.

운문 문학의 경우 EBS 연계 작품이 단독 출제되는 경우보다 비연계 작품과 복합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펴볼 만한 관련 작품을 소개하여 비연계 작품까지  
대비합니다.

### 🏠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나 열려 있는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http://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국어 전공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학습의 편리를 위해 '정답과 해설'은 책 속 책의 형태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학습 계획을 함께 안내합니다.

## 3주 완성 PLAN

DAY	PAGE	작품	학습 CHECK
1	P.010~P.032	01 이색, 「부벽루」 / 02 정약용, 「고시 7」 / 03 작자 미상, 「청산별곡」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	P.033~P.045	04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05 득오, 「모죽지랑가」 / 06 작자 미상, 「가시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3	P.046~P.061	07 작자 미상, 「정석가」 / 08 윤선도, 「몽천요」 / 09 이정보, 「꿈으로 차사를 삼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	P.062~P.082	10 신희, 「방옹시여」 / 11 이덕일, 「우국가」 / 12 작자 미상, 「거창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5	P.083~P.110	13 작자 미상, 「향산별곡」 / 14 허난설헌, 「규원가」 / 15 한산거사, 「한양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6	P.111~P.124	16 작자 미상, 「수심가」 / 17 작자 미상, 「영산가」 / 18 작자 미상, 「소춘향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7	P.125~P.136	19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 / 20 이옥봉, 「자술」 / 21 처용, 「처용가」 / 22 작자 미상, 「처용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8	P.137~P.162	23 정철, 「속미인곡」 / 24 김광옥, 「울리유곡」 / 25 유리왕, 「황조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9	P.163~P.174	26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27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 28 작자 미상, 「세상 사람들이～」 / 29 작자 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0	P.175~P.190	30 작자 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 31 작자 미상, 「시어머님 며늘야기 나빠～」 / 32 작자 미상, 「저 건너 흰웃 입은 사람～」 / 33 김상용, 「오류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1	P.191~P.204	34 작자 미상, 「우부가」 / 35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 36 인평 대군, 「바람에 휘엇노라～」 / 37 김천택, 「백구야 말 물어보자～」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2	P.205~P.223	38 김진형, 「복천가」 / 01 신석정, 「들길에 서서」 / 02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3	P.224~P.241	03 한용운, 「해당화」 / 04 박재삼, 「한」 / 05 박용철, 「떠나가는 배」 / 06 김용택, 「들국」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4	P.242~P.257	07 정지용, 「백록담」 / 08 정희성, 「저 산이 날더러 - 목월 시 운을 빌려」 / 09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 10 김광섭, 「생의 감각」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5	P.258~P.273	11 김남조, 「정념의 기」 / 12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13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14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6	P.274~P.297	15 김수영, 「폭포」 / 16 이형기, 「폭포」 / 17 신경림, 「농무」 / 18 서정주, 「신선 재곤이」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7	P.298~P.319	19 송수권, 「까치밥」 / 20 이정록, 「의자」 / 21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 22 최두석, 「성에꽃」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8	P.320~P.338	23 홍윤숙, 「가을 집 짓기」 / 24 나희덕, 「섬섬이 보이는 방 - 이중섭의 방에 와서」 / 25 김광균, 「광장」 / 26 김광규, 「대장간의 유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9	P.339~P.352	27 정인보, 「자모사」 / 28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 29 백석, 「수라」 / 30 곽재구, 「사평역에서」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0	P.353~P.381	31 강은교, 「일어서라 폴아」 / 32 이성부, 「산길에서」 / 33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34 김종길, 「성탄제」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1	P.382~P.404	35 이육사, 「광야」 / 36 김관식, 「거산호 2」 / 37 오장환, 「종가」 / 38 김영랑, 「집」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 구성과 특징

## Structure & Features

**01** 이색 부벽루(浮碧樓)  
한/유/원

어제 영명사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어제 영명사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영암-나와 북벽쪽은 고구려의 유적으로 대동강변에 있어.

성벽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성벽 성에는 달이 떠 있고 오래된 바위 위에는 구름이 몰려가고 있어.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아. 천년 동안 바위가 늙어 나갔는지 모르지 않겠는가? 영암-나와 북벽쪽은 고구려의 유적으로 대동강변에 있어.

**EBS는 이렇게 물었다**

표현 방식: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정서를 드러냄

### 한/줄/평

작품의 핵심을 잘 보여 주는 한줄평을 수록하였습니다. 반복하여 확인함으로써 실전에서 작품의 핵심 내용이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합니다.

### 작품 풀이 읽기

작품을 수록하고 구절별로 자세하게 풀어 구어체로 설명합니다. 작품의 특징, 해석의 방향을 안내하여 작품 이해를 돕습니다.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내용의 선지들을 분석하여, 근거가 되는 구절 바로 옆에 수록하였습니다. 연계 교재에서 작품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출제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기>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시간 · 원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회고에 이어, 자연사의 대비되는 인간사에 대한 무상함을 노래함	“기린이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느라니 / 신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말장한 고구려 유적지를 보며, 하늘과 돌아갔다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신손)을 언급한 변방인이 푸른 신의 율리는 강이 모습과 대조되는 인간사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남
한나라의 창립 이후 고구려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작가가 느끼고 소망한 바를 담음	“기린이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동명왕을 뜻하는 ‘천손’과 동명왕이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갔다고 전해지는 ‘기린’을 소재로 하여 동명왕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쇠약해진 고구려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바램

**E-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이색  
고려 말의 문신. 호는 목은. 고려의 멸망과 함께 은둔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태조가 준 벼슬도 사양하고 고향으로 거처 중 절망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목은문고(牧隱文集)」, 「목은시교(牧隱詩稿)」 등이 있다.

주제 옛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간사의 덧없음

표현상의 특징

- 선경후정 관해 1~4행(선경), 5~8행(후정)
- 감각적 이미지 관해 3행 '성' 빈 상연 조각달 떠 있고(시각), 7행 '휘파람 부느라니'(청각) 등
-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恆함을 대비 관해 3행 '성' 빈 상연 조각달 떠 있고, 5~6행 '기린이는 떠나간 뒤~어느 곳에서 노니는가'와 8행 '신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 E-작품의 핵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가 소개, 주제, 표현상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르며 감상하기**

**■ 한국의 설움을 노래한 작품**

(가)  
홍명(興名)이 유수(柳水)라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서니,  
석양에 지나던 꺾이 눈물계위 후로라,  
- 원현석 「홍명아 유수! 나나!」 -

(나)  
별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종정 소리 날아간 후너 끝에는 삼세도 비들기도 등 주리틀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마줄 친 옥좌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들 틀어 울었다. 어느 맨들 봉황이 울었으면 푸르른 하늘 밑 주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속' 소리도 없었다. 흙석' 앞에서 정일품, 종구름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돌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숙련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 하리라,  
- 조지훈 「봉황수」 -

• 두리기둥: 울레를 동그랗게 짠 만든 기둥.  
• 주석: 벽돌같이 다듬어진 돌.  
• 폐속: 벽돌이치음이 조성에 나갈 때 입는 옷에 놓여뜨려 차던 옷.

**작품 선정 이유**

(가)와 (나) 두 작품은 모두 한국의 설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는 고의 영의 나라였던 황제가 고려 왕조의 궁궐터였던 만월대를 찾아 가을 풍만 무성한 경치를 보고 고려의 오백년 역사를 회고하며 그 영광을 논하며는 나라를 토로하고 있어, 목석은 목동 의 피리 소리인데 「북벌음」의 황제가 부는 휘파람 소리처럼 단명한 공간에 떠도는 피리 소리가 무상함을 남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나)는 선정릉지의 방니으로 나라를 단념하고 있어, 황제는 황폐한 궁궐의 모습을 통해 몰락한 조선 왕조와 국군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의 그릇된 역사에 대한 비판과 망국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아우르며 감상하기**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으나 서로 다른 내용의 작품 등 연계 작품과 함께 감상해 볼 만한 비연계 작품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비연계 작품 출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품 선정 이유**

연계 작품과 아우르며 감상하기의 비연계 작품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정리하였습니다.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평가원 모의평가, 수능,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 천 시 가**

**[1수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이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중증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라는 엷디 살라 후고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중증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잡수와 두어리머노는  
( )  
위 중증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설은 남 보태음노니 나는  
가시노 도 도서 오소서 나는  
위 중증가 대평성대(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해설**

세상(世上)에 설은 사람 수없다 하리니와,  
만명(萬命)엔 ◎홍안(紅顔)이아 남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맛으로 삼동 말동 하여라,  
- 최남실현, 「규원가」 -

• 약수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절망상의 강 어음.

**04 (가)~(라)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② 상대편의 덕을 송축(頌祝)하고 있다.  
③ 민중의 착구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다.  
④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⑤ 자연물에 의하여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문제 P.013**

**01 ㉠**

정답 풀이

① [A]는 물의 성질과 관련된 순은 형미를 제시하며 물의 근원을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C]는 '하늘에 있을 때' 물의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타놓아, '우물을 만' 들었던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물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④ [D]는 물의 근원과 같이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비슷하다'면서 유추의 방식을 통해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⑤ [E]는 '하늘의 이치를 알리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할한다.'라고 말한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02 ㉡**

정답 풀이

(보기)에서 (나)의 '부백류'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곳으로, 이색은 '부백류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전시가

01	이색, 「부벽루(浮碧樓)」	P.010
02	정약용, 「고시(古詩) 7」	P.018
03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P.025
04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P.033
05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P.035
06	작자 미상, 「가시리」	P.038
07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P.046
08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P.052
09	이정보,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P.059
10	신흠, 「방옹시여(放翁詩餘)」	P.062
11	이덕일, 「우국가(憂國歌)」	P.070
12	작자 미상, 「거창가(居昌歌)」	P.077
13	작자 미상, 「향산별곡(香山別曲)」	P.083
14	허난설현, 「규원가(閩怨歌)」	P.087
15	한산거사, 「한양가(漢陽歌)」	P.099
16	작자 미상, 「수심가(愁心歌)」	P.105
17	작자 미상, 「영산가(令山歌)」	P.111
18	작자 미상, 「소춘향가(小春香歌)」	P.117
19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雪中訪友人不遇)」	P.122
20	이옥봉, 「자술(自述)」	P.125
21	처용, 「처용가(處容歌)」	P.129
22	작자 미상, 「처용가(處容歌)」	P.132
23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P.137
24	김광욱, 「율리유곡(栗里遺曲)」	P.152
25	유리왕, 「황조가」	P.161
26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P.163
27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P.167
28	작자 미상, 「세상 사람들이～」	P.170
29	작자 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P.173
30	작자 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P.175
31	작자 미상, 「시어머님 며늘아가 나빠～」	P.178
32	작자 미상,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P.182
33	김상응, 「오륜가(五倫歌)」	P.185
34	작자 미상, 「우부가(愚夫歌)」	P.191
35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P.196
36	인평 대군, 「바람에 휘엇노라～」	P.199
37	김천택,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P.202
38	김진형, 「북천가(北遷歌)」	P.205

## 현대시

01	신석정, 「들길에 서서」	P.214
02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P.220
03	한용운, 「해당화」	P.224
04	박재삼, 「한(恨)」	P.227
05	박용철, 「떠나가는 배」	P.232
06	김용택, 「들국」	P.239
07	정지용, 「백록담」	P.242
08	정희성, 「저 산이 날더러 - 목월 시 운을 빌려」	P.247
09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P.250
10	김광섭, 「생의 감각」	P.254
11	김남조, 「정념의 기(旗)」	P.258
12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P.262
13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P.266
14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P.270
15	김수영, 「폭포」	P.274
16	이형기, 「폭포」	P.282
17	신경림, 「농무」	P.286
18	서정주, 「신선 재꾼이」	P.293
19	송수권, 「까치밥」	P.298
20	이정록, 「의자」	P.302
21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P.306
22	최두석, 「성애꽃」	P.310
23	홍윤숙, 「가을 집 짓기」	P.320
24	나희덕, 「섶섬이 보이는 방 - 이중섭의 방에 와서」	P.324
25	김광균, 「광장」	P.328
26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P.332
27	정인보, 「자모사(慈母思)」	P.339
28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P.343
29	백석, 「수라(修羅)」	P.346
30	곽재구, 「사평역에서」	P.353
31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	P.360
32	이성부, 「산길에서」	P.364
33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P.368
34	김종길, 「성탄제」	P.375
35	이육사, 「광야」	P.382
36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2」	P.391
37	오장환, 「종가」	P.398
38	김영랑, 「집」	P.402

·운문편·

# 고전시가



# 01

고 전 시 가

이색

## 부벽루(浮碧樓)

한/줄/평

[ 역사를 돌이켜 보며, 자연과 다른 인간사의 무상함을 느낌 ]

**작품 풀이 읽기**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small>화자가 위치한 장소</small>	

영명사와 부벽루는 고구려의 유적으로 대동강변에 있어.

<b>E1</b>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small>사각적 이미지</small>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	-------

텅 빈 성에는 달이 떠 있고 오래된 바위 위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네. 쌀쌀한 분위기가 느껴져. 한때 융성했을 한 나라의 '성'이 텅 비어 있다는 표현과 '천년의 구름'에서 인간사의 무상함과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

1~4행: 부벽루에 올라서 바라본 풍경(선경)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회고하고 있지. 화자는 영광스러웠던 고구려의 모습을 떠올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던없고 허망할 뿐이지.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small>청각적 이미지</small>	

화자는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며 쇠퇴해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있어.

<b>E1</b>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

산도 푸르고 강도 흘러간대네.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무한함을 비교하니 발랄한 심정일 거야.

5~8행: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쓸쓸한 심정(후정)

- \*영명사: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금수산에 있는 절.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지은 아홉 절 중의 하나라고 전해짐.
- \*부벽루: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
- \*기린마: 고구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
-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표현 방식: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정서를 드러냄



E-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이색

고려 말의 문신. 호는 목은. 고려의 멸망과 함께 은둔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태조가 준 벼슬도 사양하고 고향으로 가던 중 절명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목은문고(牧隱文集)」, 「목은시고(牧隱詩藁)」 등이 있다.

주제 옛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간사의 덧없음

표현상의 특징

- 선경후정 근거 1~4행(선경), 5~8행(후정)
- 감각적 이미지 근거 3행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시각), 7행 ‘휘파람 부노라니’(청각) 등
-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비 근거 3행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5~6행 ‘기린마는 떠나간 뒤~어느 곳에서 노니는가’와 8행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11 망국의 설움을 노래한 작품

(가)

흥망(興亡)이 유수 | 러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던 객이 눈물계위 호로라.

- 원천석, 「흥망이 유수 | 러니~」-

(나)

별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등 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뎨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중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 하리라.

- 조지훈, 「봉황수\*」-

- \*두리기둥: 돌레를 둥그렇게 깎아 만든 기둥.
- \*추석: 벽돌같이 다듬어진 돌.
- \*패옥: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옷에 늘어뜨려 차던 옥.
- \*품석: 대궐 안 정전 앞뜰에 계급의 품계를 새겨 두고 정일품부터 중구품에 이르기까지 두 줄로 세운 돌.
- \*호곡: 소리를 내어 슬피 울.
- \*봉황수: 봉황(우리 민족의 상징)의 슬픔.

12 대동강을 소재로 하는 한시

조천석은 응당 옛 일을 알고 있겠지.  
옛 나라는 상전벽해했지만 물건은 안 바뀌니  
성 아래 물 가득한 대동강 달 밝은 밤에  
어찌 기린마는 가서 오지 않는가?

朝天舊事石應知  
故國滄桑物不移  
城下滿江明月夜  
豈無麟馬往來時

- 신광수, 「관서악부」-

작품 선정 이유

(가)와 (나) 두 작품은 모두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있지. (가)는 고려 말의 신하였던 화자가 고려 왕조의 궁궐터였던 만월대를 찾아 가을 풀만 무성한 경리를 보고 고려의 오백년 역사를 회고하며 그 멸망을 슬퍼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 목적은 목동의 피리 노리인데 「부벽루」의 화자가 부는 휘파람 소리처럼 적막한 공간에 퍼지는 피리 노리가 무상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화자는 황폐한 궁궐의 모습을 통해 몰락한 조선 왕조와 국권의 상실을 회고하면서, 지난 날의 그려진 역사에 대한 비판과 망국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지.

작품 선정 이유

조선 정도 래의 문인 신광수가 평양강사로 가는 채제공을 위해 지은 작품이야. 1행의 '조천석'과 4행의 '기린마'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색의 「부벽루」를 바탕으로 갈고 지은 건이야. 상전벽해를 겪어 고구려 수도 평양의 옛 모습은 전혀 남은 것이 없지만, 조천석이 있어 옛날의 영화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지. 그러면서 3행과 4행에선 달 밝은 밤에 신년이 되어 간 동명왕이 오지 않을까 상상하고 있어. 이색의 시에 자신의 정서를 얹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지.

[0310학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P.03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돌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天孫)\*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 이색, 「부벽루」 -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나)

꿇도리 저 꿇도리 에엣브다 저 꿇도리  
어인 꿇도리 지는 돌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  
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紗窓) 여원  
좁을 슬드리도 췌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써인가 호노라.

- 작자 미상, 「꿇도리 저 꿇도리~」 -

(다)

천층랑\* 한 가운데 백적간에 올랐더니  
㉠ 무단한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나리나니  
억만 장(丈)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고  
㉡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네.  
오동 저문 날 비에 외기러기 우러엘 제  
관산 만리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望夫) 산전(山前)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眼力)이 다했던고  
낙화 말이 없고 벽창(碧窓)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를 그리누나!  
㉢ 팔월 추풍(秋風)이 띠집을 거두니  
빈 깃에 쌓인 알이 물불을 못 면하네.  
생리 사별(生離死別)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丈) 백발이 일야(一夜)에 기도 길샤  
㉣ 풍파에 현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아!

강천 지는 해에 배는 탈이 없는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봉정(鵬程)을 멀리곰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딪쳐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 없고 어안(魚雁)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매화나 보내고져 역로(驛路)를 바라보니,  
옥랑\* 명월을 예 보던 낮빛인 듯  
㉤ 양춘을 언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냇이 초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늘 위하여 적시는고.

- 조위, 「만분가」 -

- \*천층랑: 험한 물결.
- \*환해: 관리의 사회.
- \*옥랑: 옥대들보.

0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무상감에 젖어 있다.
- ③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방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옮겨가고 있다.

07 (가)~(다)의 '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조각달'은 결핍의 의미를, (나)의 '돌'은 충만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가)의 '조각달'은 쓸쓸한 상황을, (다)의 '명월'은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 ③ (나)의 '돌'은 정적인 느낌을, (다)의 '명월'은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가), (나)의 달은 관념적 존재이나, (다)의 달은 실제적 존재이다.
- ⑤ (가)~(다)의 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운문편 ·

# 현대시

# 01

현대시

신석정

## 들길에 서서

한/줄/평

들길에 서서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를 다짐

### 작품 풀이 읽기

색채 이미지

**E1**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색채 이미지 / 반복

내 머리 위에는 항상 **E1** 푸른 하늘이 있다

반복

시적 화자인 '나'의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과 '푸른 산' 위에 떠 있는 '흰 구름'이 서로 대응되니, '푸른 산'은 '나'와 유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

1연: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

**E2** 하늘을 향하고 **E3**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직유

하늘을 향해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는 것을 '숭고하다(뜻이 높고 고상하다)'고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네.

2연: 푸른 하늘을 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숭고함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도 끊임없이(부절히) 움직이는 지구를 밟고 선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3연: 연약한 두 다리지만 지구를 밟음

**E3** 푸른 산처럼 **E2**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직유

연약한 다리로도 굳건히 지구를 딛고 서는 것을 '푸른 산'이 든든하게 지구를 딛고 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이것을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금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4연: 지구를 딛고 굳세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대비

저문 들길에 서서 **E4** 푸른 별을 바라보자……

상징(암울한 현실)

상징(희망, 이상)

'생활'이 '뼈에 저리도록' 슬퍼다는 건, '저문 들길'에서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힘든 현실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지. 하지만 화자는 그럼에도 '좋다'고 하며 '푸른 별'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어. 희망을 가지고, 이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5연: 저문 들길에서도 푸른 별을 바라봄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표현 방식: 색채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정서 강조

**E2** 구절의 의미: '하늘을 향하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에서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짐작할 수 있음

**E3** 표현 방식: 직유를 통해 자연물과 인간의 유사성 제시

**E4** 구절의 의미: '푸른 별'은 희망, 꿈, 이상을 의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E5**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말줄임표를 통한 시적 여운 형성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을 거룩한 ‘일과’로 남는 것에서, 계속해서 희망과 이상을 되새기며 나아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6연: 푸른 별(희망)을 지향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

**E5** 표현 방식: 말줄임표로 말을 생략하며 시상을 끝맺어 시적 여운 형성

###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시인 · 현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살기 힘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

작품의 근거

“생활’은 슬퍼도 좋다”

=

해제

가정과 양보의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줌

### E-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신석정

1907년 전라북도 부안군 출생. 주로 자연 친화적이며 전원적·목가적 성향이 드러나는 서정시를 통해 암울한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복 이후에는 현실 비판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다가, 1974년 타계하였다.

주제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지와 다짐

표현상의 특징

- 색채 이미지 **근거** 1연 ‘푸른 산’, ‘흰 구름’, 5연 ‘푸른 별’ 등
- 반복 **근거** 1연, 4연 ‘푸른 산’, 5연, 6연 ‘푸른 별’
- 직유 **근거** 2연 ‘산림처럼’, 4연 ‘푸른 산처럼’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근거** 2연, 4연 ‘~처럼 ~는 것이(은) 얼마나 ~한 일이나’
- 대비, 상징 **근거** 5연 ‘저문 들길’과 ‘푸른 별’
-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여운을 형성하며 마무리함 **근거** 6연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며 이상을 추구하는 시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작품 선정 이유

이 시에서 화자인 '나'는 '어둠'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암울한 현실(일제강점기) 속에 억압받는 현실적 자아인 '백골'과 이상향을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이러한 내적 갈등은 곧 화자의 자아성찰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끝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혼'이 지향하는 이상향, 혹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조국의 미래를 추구하는 자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상과 희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와 비유 하다고 할 수 있겠지?



[07수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P.25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눕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0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 P.013

고전시가 01

부벽루 [이색]

정답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①
	07 ②	08 ①	09 ⑤	10 ④		

[01~05] 0910학평

이첨, 「원수」 / 이색, 「부벽루」 / 작자 미상, 「관동가」

01 ③

정답 풀이

(나)에서는 '조각달', '천 년의 구름',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철로 흐르네'를 통해 영원한 자연과 '텅 빈 성' 등의 유한한 인간사를 대조하여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에서는 답교하는 '소년들', 화려하는 만물의 모습과 오지 않는 '우리 님'을 대조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 교감을 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서는 '오늘날 위에 있는 자'가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취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을 뿐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도 오지 않는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을 뿐,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가)~(다) 모두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할 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②

정답 풀이

[B]는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와 같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회에 널리 통하는 상식인 통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아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는 물의 성질과 관련된 숨은 원리를 제시하며 물의 근원을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③ [C]는 '하동에 있을 때' 물의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우물을 만'들었던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며, 물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D]는 물의 근원과 같이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비슷하다면서 유추의 방식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⑤ [E]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이를 징험한다."라고 말한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03 ③

정답 풀이

〈보기〉에서 (나)의 '부벽루'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곳으로, 이색은 '부벽루 주위의 퇴락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나)의 '조각달'은 '텅 빈 성' 주위에 '떠 있는 것으로, 화자가 퇴락한 부벽루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느낀 쓸쓸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나)는 '이색이 여행을 하다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성의 부벽루에 올라 감회를 읊은 한시'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나)의 '지나다가', '잠시'는 작가가 여행 중임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원나라가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 동녕부를 설치할 즈음 평양은 크게 황폐해졌고, 그 후 다시 고려의 땅이 되었지만 옛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나)의 '텅 빈 성'은 고구려의 도읍이었으나 이제는 퇴락한 평양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원나라에 의해 쇠약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이색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과 관련된 기린마의 전설을 떠올'린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나)의 '천손'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이색은 '고려의 국운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쓸쓸한 심정'을 '구체적 행위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나)의 '휘파람 부노라니'는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담긴 구체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제 P.218

현대시 01

들길에 서서 [신석정]

정답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④

[01~05] 07수능

이육사, 「교목」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김중길, 「고고」

01 ⑤

정답 풀이

(가)에서는 '검은 그림자 쓸쓸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에서는 '뺨이 저리도록' 슬픈 생활에서도 굴하지 않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다)에서는 '북한산'과 같은 고고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날 뿐,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③ (다)는 일상 생활의 소중함보다는 고고한 정신 세계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자연의 모습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발견하여 보여줄 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린 것은 아니다.

02 ①

정답 풀이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에서 비유를, '거미집', '꿈길', '바람' 등에서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푸른 산처럼'에서 비유를,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에서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와 (나)에서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나)는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에서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는 동일한 색채어가 반복되어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에는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03 ⑤

정답 풀이

(가)의 '바람'은 화자를 흔들려 하는 존재로, <보기>의 '반궁과 투옥과 유랑'과 같이 시인을 힘겹게 만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바람'이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식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의하면 (가)의 제목인 '교목'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로 '항일 독립 투쟁'에 힘썼던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 의하면 시인의 작품 경향은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가)의 각 연이 3행으로 이루어진 것과 부정어로 종결하고 있는 것에서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찾을 수 있다.
- ③ <보기>에 의하면 시인은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스러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보기>에 의하면 시인은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의 '끝없는 꿈길'은 이러한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③

정답 풀이

(나)는 A, B, C의 내용이 각각 삶의 숭고함과 기쁨, 거룩함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묘사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